

## 광주·전남 현안 해결책 내놓고 상생 통한 미래 비전 제시하라

**jein** 통합 광주전남연구원  
지역 싱크탱크 거듭나야

### 민감 현안에 목소리 못내

광주일보는 민선 6기 광주·전남 상생의 상징인 광주전남연구원이 2015년 통합 취지를 살려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지역의 싱크탱크인 연구원이 지역 내 민감한 현안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연구 성과가 지역 내외에 공감대를 얻으면서 사·도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연구원 내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혁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광주·전남의 상생과 이를 통한 미래 발전을 위해 전격 통합된 광주전남연구원이 민감한 지역현안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전공대 입지부터 빛가람혁신도시 기금 운용, 빛가람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열병합발전소 문제, 공공항 이 전 등 민선 7기 부상한 사·도 복합 현안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과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갈등 양상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도시철도 2호선, 민간공원 특례사업, 구도심 쇠락 및 무분별한 아파트 개발, 흑산도공항 전방 논란, 인구 감소 및 지역자금 유출 등 지역 내 현안에 대해서도 제 때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전공대 입지 선정 과정에서 광주·전남이 치열한 출혈 경쟁을 벌였으나 정작 상생의 상징인 광주전남연구원이 별다른 역할을

한전공대·나주 SRF·군공항 등 시·도 갈등에 역할 못하고 눈치 쾀진 몸집에 혁신은 미흡 지적도

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도의 발전과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던 것이 통합 취지였지만, 오히려 사·도의 눈치를 보면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물리적인 결합으로 몸집만 불렀을 뿐 내부 혁신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지난 1991년 12월 설립된 전남발전연구원을 모태로 하고 있다. 1995년 광주가 출연에 참여하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됐다. 지난 2007년 광역시와 도의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분리됐다.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광주·전남 상생을 다짐한 윤창현 광주시장 후보와 이낙연 전남지사(현 국무총리) 후보가 당선된 뒤 민선 6기 사·도 상생사업이 추진됐고, 광주전남연구원은 2015년 조례안 마련, 설립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통합을 마쳤다.

광주일보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전남연구원이 다른 기획과제의 주제를 분석했다. 기획과제는 거시적인 광주전남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장기연구과제로, 다수의 연구진과 공동으로 장기간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30여 명의 연구위원들이 2~15명씩 집단으로 호남고속철도 개통 지역발전전략, 전

라도 정도 1000년 기념사업, 문재인 정부 출범 지역 신규시책 과제, 미래아시아 성장 국가와 교류협력 방안, 2030 광주미래비전 및 추진 전략, 광주·전남 100대 지표, 빛가람혁신도시 성장과 과제 등을 다뤘다. 여기에 광주·전남 시군구 발전구상, 4차 산업혁명 지역 대응,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대응, 달빛동맹 성과와 발전방안, 대통령 선거 공약 발굴,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전략,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광주·무안 국제공항 통합시기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들 과제 중 일부는 장기·거시적으로 다루기보다 시급히 대책과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현안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토 균형발전, 지방자치 및 분권, 상생발전 방안, 지역기간사업 전방과 미래핵심산업 육성 방안 등 지역 미래와 직결돼 있는 문제는 제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되는 핵심연구과제인 정책과제, 사·도에서 수시 요청하거나 자체개발한 시급성을 갖춘 지원과제 등에서도 광주·전남이 안고 있는 현안을 비껴갔다. 도시철도 2호선, 광주형 일자리, 민간공원 특례사업, 군공항 이전, 새만금국제공항, 여수산, 솔라시도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대학 한 교수는 "광주전남연구원은 광주와 전남이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상생을 통해 미래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해야 하지만 아직 여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각각의 과제 성과들이 사·도정과 사·도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공감을 얻는지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 표준지 공시지가 1년 새 10.71% 폭등

### 전국 평균 9.42%보다 높아

광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10.71% 상승했다. 광주는 비싼 땅이 많은 서울(13.87%)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도심재개발, 송정동 상권 활성화, 에너지밸리 일반산단 조성 등으로 인한 개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기사 14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광주는 10.71%, 전남 6.28% 상승했다고 12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309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보유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전국의 표준지 상승률은 9.42%로, 지난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13.87%), 광주, 부산(10.26%), 제주(9.74%) 등 4곳에 불과했다. 전남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6.28%로, 전년도 상승률(5.42%)보다 높았지만 전국 평균(9.42%)에 비해서는 낮았다.

광주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광주시 동구 충장로 2가 우체국 맞은편 LG유플러스 스퀘어 부지(152.1㎡)로, 올해 공시가격은 ㎡당 1220만원을 기록했다. 진도군 조도면 놀육도리 입야(1만3686㎡)는 ㎡당 210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3년째 전국 최저지가를 기록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민심에 불타고 간 김진태... 쓰레기 투척 국회에서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2일 오전 광주 북구 자유한국당 광주시·전남도당사를 당권 주자 자격으로 방문했다. 당사로 들어온 한 시민이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김의원을 향해 뿌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 제정하라”

〈否認〉

### 5월단체·정가·시민단체 ‘한국당 5·18 망언’ 규탄 확산 16일 5·18민주광장서 ‘100만 광주시민 꺾기대회’ 열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이 5·18민주화운동을 ‘폭동’ ‘괴물’로 모욕한 것과 관련, 5월 단체와 지역 정가, 시민단체들이 ‘한국형 홀로코스트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오는 16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이들의 망언을 규탄하는 ‘100만 광주시민 꺾기대회’를 열고, 오는 23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범국민 촛불 결의 대회를 갖기로 하는 등 ‘5·18 왜곡 사태’가 ‘제2의 촛불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관련기사 3편〉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광주시민에 사죄하고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진행된 대책위 회의에는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해 김동찬 광

주시의회 의장,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 정춘식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 이정재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장 등 정관계·시민단체 대표 26명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민의를 전담인 국회 한복판에서 자칭 국민의 대변자라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망언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짓밟고 오월 영령을 욕보이며 광주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질타했다.

대책위는 이어 ▲자유한국당은 광주시민을 모욕하고 역사를 왜곡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오월 영령과 150만 광주시민에게 사죄할 것 ▲국회 윤리위원회는 국민의 대변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망각하고 역사에 죄를 지은 이들을 의원직에서 즉각 제명 할 것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을 즉각 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

날 성명을 내고 “역사부정과 범법행위에 합당한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리기 바라며, 국민과 5·18 민주화운동유공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도 13일 전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5·18 왜곡 사태에 따른 후속 대처를 논의할 예정이며, 5월 단체들도 상경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한국영화 100년 ‘춘향전’ ‘지원령’ ▶18편

김여울 기자 KIA 오키나와 캠프 가다 ▶20편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Introducing GLC 350 e 4MATIC

#switchtoEQ

GLC 350 e 4MATIC 출시!  
 탁월한 퍼포먼스와 놀라운 연비를  
 동시에 실현한 메르세데스-벤츠의 e-Mobilit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에서 경험하세요!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초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어룡대로 603(초음동)  
 수암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20(수암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GLC 350 e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2,120kg, 저속7단), 복합회합용모드 연비 (CS연비): 9.7km/ℓ (도심연비: 9.1km/ℓ, 고속도로연비: 10.6km/ℓ),  
 복합전기모드 연비 (CD연비): 2.3km/kWh (도심연비: 2.0km/kWh, 고속도로연비: 2.6km/kWh), 복합CO<sub>2</sub> 배출량: 92g/km, 1회 충전 주행거리: 15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를 이미지는 국내 시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